# 輪禍 잦은 성삼재 도로 폐쇄하고 케이블카 놓자

## 구례군의회, 환경부·전남도 등에 건의

구례군의회가 지방도 861호인 지리산 성삼재 도로를 폐쇄하고 대안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성욱 구례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지난 20일 구례군 출신 박인환 전남도 의원과 함께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성삼재 도로 폐쇄를 건의했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지리산 성삼재 도로는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 1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죽음의 도로로 전락했다"며 "이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도로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성삼재 도로가 폐쇄될 경우 연간 300만 명에 이르는 지리산 탐방객들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삭도 즉 케이블 카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행정부지사는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례군의회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구례군의회는 지난 10일, 정례회 제 6차 본회의에서 '지리산 성삼재 도로 폐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자연 훼손 등을 이유로 케이블 카 건설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다음 주부터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성삼재 도로 폐쇄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장흥 군수 부인 1억 헌금 사건

## 26일 대법 판결…지역민 촉각

'기부행위냐' '통상적인 십일조 헌금이냐'를 놓고 1년 6개월여 동안 논란을 벌여온 '장흥군수 부인 1억원 교회 헌금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지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김인규 장흥군수 부인의 1억원 헌금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연다.

1심인 광주지법 장흥지원과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김 군수 부인인 김모씨(50)에게 똑같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해 1월27일 김군수 부인이 평소 다니던 장흥읍 소재 J교회에 익명으로 1억원을 기부하면서 비롯됐다.

김군수 부인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하나님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십일조 헌금을 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로 간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교회헌금을 기부행위로 간주해 공직 선거법상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법조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김 군수 부인은 지난 5월 16일자로 '십일조 헌금을 기부행위로 기소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신청(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더위 식히는 동료애

### 보성군 직원 부친 수술에 헌혈증서 400여매 모아

보성군청 공무원들의 진한 동료애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 주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 보성군청 내부 전산망에 조영신(겸백면 환경복지계) 직원의 부친 조민호씨가 심장판막증 대수술을 받고 많은 수혈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올라왔다.

그로부터 1시간 뒤 무려 400매 이상의 헌혈증서가 모아졌다. 이날 헌혈증서를 가장 많이 기증한 보성읍사무소 조영수 환경복지계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동료 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사랑 나눔이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다슬기 누가 많이 잡나** 지난 21일 장흥군 재향군인회(회장 오재일) 주최로 탐진강에서 열린 다슬기 체험행사에 참가한 1천여명의 관광객들이 다슬기 줍기와 메기 잡기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흥군은 매년 다슬기 축제를 정례화하고 탐진강 다슬기 브랜드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장성군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 본격화

### '홍길동 어드벤처 과학대전' 서울서 장나라 팬사인회도

장성군이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1일 서울 교보문고에서 만화 '홍길동 어드벤처 과학대전' 출판 기념회를 열고 홍보대사인 탤런트 장나라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사진〉

'홍길동 어드벤처 과학대전'은 200쪽에 모두 5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왕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노비의 자식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홍길동이 이상국가 율도국을 세우게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모험을 담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2005년부터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디아이스페이스와 공동으로 '홍길동 어드벤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제작과 출판,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게임, OST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길동 어드벤처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복원돼 오는 10월 SBS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한류 스타 장나라가 명예홍보대사로 나서 OST도 부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만화애니메이션게임 박람회'에 첫선을 보여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 총체보리 신품종 보급

보리 알곡 뿐만 아니라 잎·줄기까지 수확해 가축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총체보리(풋통보리) 품종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가축사료용 총체보리 신품종인 '영양보리' 91t을 올해 농가에 보급한다.

'영양보리'는 10a당 수확량이 3t으로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동기자 song@

# '농민 고민'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농협 완도군지부 '이동상담실' 운영

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정동한)가 농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각종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완도군 지부 회의실에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은 지난 1998년부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 매년 확대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완도 이동상담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원의 교수 그리고 한국의학연구소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50여 명의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정동한 지부장은 "농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지만, 실제로 전문가와 마주앉아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이동상담실을 통해 농민들이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고등어 선어·냉동 공장

### 완도에 140억 들여 건립

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어 선어·냉동 가공 공장이 들어선다.

경북 경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쉬라인의 투자회사인 ㈜완도수산물류센타는 완도읍 완도농공단지 1만589㎡의 부지에 총 사업비 139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어 가공 공장을 건설한다.

고등어 가공공장이 준공되면 1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매일 2~3척의 고등어 운반선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강진 울트라 마라톤대회

## 내달 4일 해안도로 일주 코스서

오는 8월 4일부터 이틀간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군의 해안도로를 일주하는 울트라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100㎞를 달리는 이번 제 2회 고려청자 강진울트라마라톤대회는 오는 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5일 아침 9시까지 진행된다.

강진 울트라마라톤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성균, http://gangjinultra.com)가 주관하고 강진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철각들이 참가한다.

이번 울트라 마라톤은 종합운동장을 출발,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지며 고려청자 도요지를 지나 청정해역에 자리한 천혜의 미항 마량항을 경유하게 된다.

특히 최근 개통된 강진 마량과 완도 고금도를 연결하는 고금대교를 지나 약산면까지가 코스에 새로 포함돼 오염되지 않은 남도해안 풍경을 만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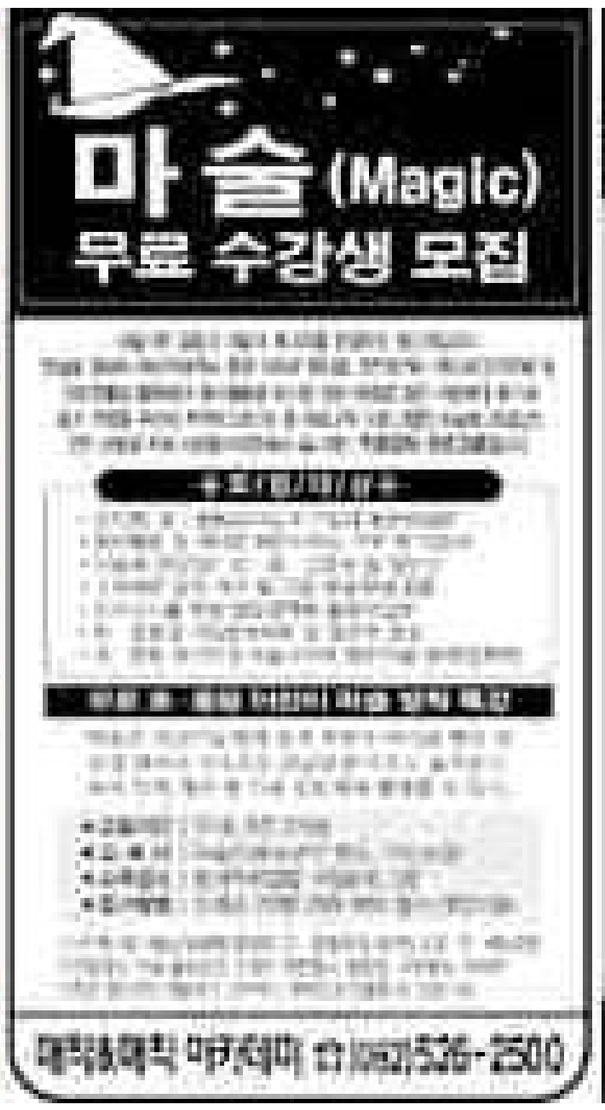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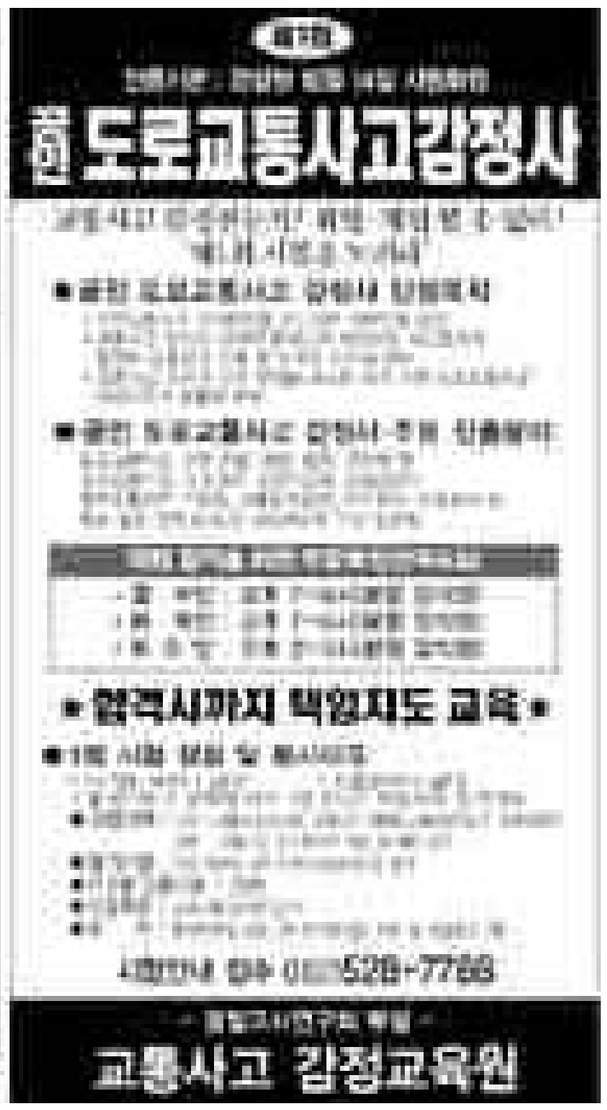
/강진=이병철기자 mood@

## 농축산물 절도예방

### 보성경찰 검문강화

보성경찰서(서장 안병호)가 지난 20일부터 농축산물 절도 예방 및 검거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보성경찰은 강력팀 형사 및 지구대·파출소 순찰요원을 총동원해 주·야간 범죄 취약지역에 선점 배치, 검문검색 및 매복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농축산물 절도예방이렇게 합시다'라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